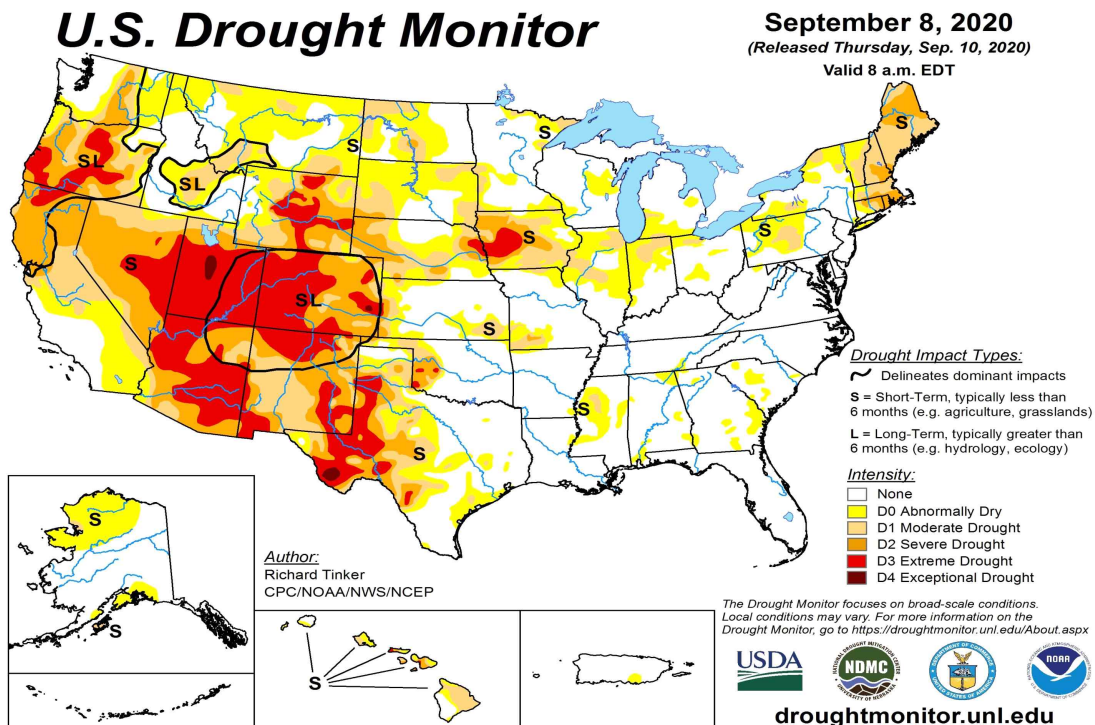


9월 1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37)

□ 미국 기후 현황(9/6~9/12)

수십 건의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산불이 서부 전역에 계속 타 올랐는데 말라붙은 태평양 연안 주들에 화염이 가장 많이 집중되었다. 콜로라도의 2건과 함께 주말까지 캘리포니아, 오레곤 및 워싱턴에서 15건의 활발한 화재가 발생하여 최소 10만 에이커의 초목을 불태웠다. 최소 12건의 활발한 산불이 100개 이상의 구조물을 파괴했으며, 36건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으며 몇몇 개인들은 아직 신원 불명 상태에 있었다. 한편, 로키 산맥 일부, 평원 및 중서부에서 강한 비 (높은 고도에서는 눈)가 발달하여 야외 작업을 늦추기는 했지만 표토 수분은 상승시켜서 가뭄 스트레스를 받은 방목지, 목초지 및 미숙한 여름 작물에게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대서양 중부 연안 평원과 텍사스 일부를 포함한 어떤 지역들에는 비가 과도하게 내려서 지역 홍수가 발생했다. 주 후반에 열대성 폭풍 셀리 (나중에 허리케인으로 변함)와 관련된 폭우가 플로리다 반도 전역에 퍼졌다. 플로리다키스 제도를 포함하여 플로리다 주의 남부 지역에 과도한 비가 내렸다. 마지막으로, 매서운 이른 철 한파로 인해 평원, 로키 산맥 및 중서부 위쪽 전역에 기록적인 저온이 발생한 한편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및 연안 근처에 그리고 오하이오 계곡 남쪽으로 더운 날씨가 지속되었다. 습한 상태들이 남동부의 더위를 동반했다. 오하이오 계곡과 태평양 연안 주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5° F 높았으나 로키 산맥의 북부 및 중부, 평원 및 중서부 위쪽을 포함한 넓은 지역은 대체로 평년보다 10~15° F 낮은 온도 범위에 있었다.



### □ 농업 현황 요약(9/7~9/13)

미국 중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크게 낮은 기온이 기록되었다. 오대호 일부, 평원, 로키 산맥, 남서부 및 텍사스까지 아우르는 길고 넓은 구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9° F 이상 낮았다. 대조적으로 대서양 중부, 미시시피 계곡 하류, 북동부, 오하이오 계곡, 태평양 북서부 및 남동부 대부분은 평년보다 더 따뜻했다. 한편, 미국 서부의 3분의 1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플로리다와 대서양 중부 연안 지역을 제외하고 남부와 동부 대부분도 평년보다 건조했다. 하지만 로키 산맥, 평원 오대양 및 텍사스의 많은 구역들에는 평년 이상의 강수가 있었다. 일리노이, 아이오와, 텍사스 및 버지니아 남동부 일부는 적어도 5인치를 기록했다.

### □ 세계 기후 현황(9/6~9/12)

■ 유럽: 먼 북부를 제외하고 유럽 대부분은 날씨가 다시 건조해졌고 대륙의 동쪽 중앙 부분을 가로질러 좁은 띠처럼 비가 내렸을 뿐이었다. 최근 유럽의 많은 지역에 적당하거나 강한 비가 내린 후에 맑은 하늘이 겨울 밀과 유채의 파종은 물론이고 작물의 건조와 수확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8월 말과 9월 초에 가벼운 비가 내렸는데 이곳은 가뭄이 고착되어 그로 인해 겨울 작물의 파종과 출현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부족했었다. 스페인에서는 선선한 우기가 서서히 시작되기도 했는데,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다가오는 폭풍 전선이 유익한 소나기를 내려주고 있었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북해와 발트해에 인접한 최북단 재배 지역에서는 적당하거나 강한 비 (10~85 mm)가 보고되었고, 이탈리아 북부에서 동쪽으로 폴란드 남부까지 길게 뻗어 있는 지역에 내린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 (1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겨울 작물의 활착을 위해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기온이 북유럽에서는 평년에 근접했던 반면 남부 작물 지역에서는 온기 (평년보다 2~5° C 높음)가 머물러서 대조를 이루었다.

■ 구소련(서부): 늦여름에 더위와 건조가 더해지면서 이 지역의 많은 곳들에서 가뭄이 더욱 악화되었다. 한랭 전선이 와서 이 지역의 날씨를 약간 더 시원하게 (낮 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30도대) 해주었지만 전선이 통과하면서 내린 비는 거의 없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건조하면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평년보다 최대 4° C 높음)가 여름 작물의 성숙, 건조 및 수확을 가속화했다. 하지만 심화되는 가뭄이 서부 러시아 일부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하는 여름 작물들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더욱 감소시켰다; 많은 지역에서 60일 총강우량은 평년의 25~50% 수준이었다. 더욱이, 겨울 밀이 적절하게 활착하려면, 특히 중부 및 남부 재배 지역에 광범위한 강우가 곧 필요할 것이다.



■ 동아시아: 남한에서 태풍 하이선이 지난 주의 태풍 마이삭과 거의 같은 장소에 상륙했다. 이 폭풍은 한반도와 중국 북동부 전역에 광범위한 폭우 (50~1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를 일으켜 성숙한 작물들의 발을 수분으로 더욱 포화시켰다. 일주일에 두 번의 태풍이 강타한 후에 홍수가 벼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반도 동부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한편, 일본에서는 폭풍과 관련하여 내린 강우 (25~100 mm)가, 계절 건조가 만연했던 북부의 많은 곳을 빗나가기는 했지만, 단기 건조를 완화했다. 호우가 내린 주변을 보면, 25~50 mm의 강우가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 서부 및 주변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종실 비대 중인 옥수수와 콩에게 도움이 되었다. 남쪽에서 계절풍 소나기 (25~100 mm)가 중국 남부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오래 지속되고 있었던 가뭄을 완화해주었고 늦작물 벼와 사탕수수에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강우의 변화로 인해서 북중국 평원과 양쯔 계곡의 북쪽 절반의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기온이 평년보다 1~3° C 높음) 건조해지면서 여름 작물들의 성숙과 수확의 개시에 도움이 되었다.

■ 호주: 산발적인 소나기 (5~25 mm)가 지역의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어서 생식기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에게 유익했고 여름 작물의 파종에 앞서서 일부 밭의 상태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토양 수분이 밀, 보리 및 캐놀라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충분했지만, 지역적으로 작물의 상태와 전망을 현재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더 광범위한 비가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밀 벨트 주요 지역 전체에 걸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 C 높아져서 겨울 작물의 발달을 가속화하였다. 하지만 남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 C 높아서 이런 발달을 더욱 가속화했다.

■ 아르헨티나: 중앙 아르헨티나의 수많은 고수확 농장 지역이 다시 건조해졌는데 이곳은 수분이 겨울 곡류의 발달에 여전히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 주에 절실했던 비가 내린 이후에, 코르도바에서 동쪽으로 파라나 강 계곡 하류를 지나는 넓은 지역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엔트레 리오스와 산타 페의 남부 구역)이 완전히 건조했다; 한편, 조건들이 영양기 겨울 밀과 보리에게 더 유리했었던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 전역에 가볍거나 적당한 비 (5~25 mm)가 계속 내렸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의 1° C 이내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높은 섭씨 10도대에서 높은 20도대 범위에 있었다. 짧은 온도 상승 이후 여러 곳에 다시 서리가 내렸지만 기온은 지난 주 만큼 낮지는 않았다. 북부 전체적으로 더 따뜻한 상태 (낮 최고 기온이 낮은 40도대 수준에 도달)가 우세했지만 소나기 (대체로 10~25 mm 사이)는 엔트레 리오스와 코리엔테스 경계 부근으로 국한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9월 10일 현재 16% 파종되어 작년보다 14 포인트 뒤쳐져 있었다; 산타 페는 74% 파종으로 가장 앞섰다 (작년에는 88%).

■ 브라질: 남부 생산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밀의 빠른 발달에 박차를 가했지만 많은 곳들이 수분 부족 상태에 있었다. 히우그란지두술과 산타 카타리나에만 강우 (5~25 mm)가 있었고 더 먼 북쪽으로 건조가 계속되었다; 많은 농경지에서 평년보다 더 건조한 날씨가 연속 3주째 이어졌다. 건조가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름의 온기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대 초

중반에 도달)로 인해 파라나와 그 북쪽의 생식기-중실비대기 중에 있는 밀의 수분 수요가 높게 유지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밀은 9월 8일 현재 11% 수확되었고 수확되지 않은 작물의 51%는 영양기-중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한편, 히우그란지두술의 밀 가운데 98%가 영양기-중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파라나와 히우그란지두술 모두 주철 옥수수 파종이 진행 중이었다. 브라질의 다른 곳은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고 북동부 해안을 따라 약간의 소나기가 발생했을 뿐이었다.